

119, 생활민원·오인신고에 ‘허덕’

소방 인력·장비 불필요한 출동 사례 수두룩 펌프차·구급차 긴급출동해보니... “만취 상태”

단순 생활민원과 오인신고 등으로 인해 소방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삼도동 다세대 주택에 사는 A씨가 연락이 안돼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며 지인 B씨가 119에 신고했다.

이에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는 펌프차와 구급차를 A씨의 주택으로 출동시켰으나 집안에 있던 A씨는 휴대폰이 진동으로 돼 있어 전화를 못 받았을 뿐 신변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앞서 지난 7월 27일 12시쯤 C씨는 친인니의 동거인으로부터 “인니가 숨졌다”는 전화를 받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제주소방서 노형

119센터는 펌프차와 구급차를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현장 확인 결과 C씨의 친인니와 동거인 둘다 만취 상태로 신변에 이상은 없었다.

이와 같은 단순 생활민원과 함께 오인신고 등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정작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해야 할 소방인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10월 31일 기준) 제주 지역 구조활동 건수는 1만731건이며, 이를 통해 1330명의 인명이 구조됐다.

안전조치, 동물포획, 별집제거 등을 제외하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화재 803건, 잠금장치 개방 703건, 교통사고 517건, 승강기 사고 218건, 실내 감힘 128건 등의 순이다.

긴급한 상황인 화재로 인한 출동 건수와 단순 생활 민원인 잠금장치 개방 건수가 거의 비슷한 셈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문 개방 등 구조활동 필요성이 없는 단순 민원은 거절이 가능하지만,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 관계자는 “혼자 거주하는 세대와 노인 인구 증가로 이웃 등이 신변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가 증가했다”며 “가끔 119구조대를 이용하면 돈이 들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진 양제 시민들의 신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9 구조 활동은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 생활민원 신고는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2공항 도민공론화 특위 당장 구성하라” 반대단체 자전거 행진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문에서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과 공론화 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자전거 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회에서 ‘제2공항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 보류한 도의원들을 규탄한다”며 “오는 15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제2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문에서 제2공항 도민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안 통과를 촉구하며 자전거 행진에 나섰다.

공항 도민공론화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진은 제주도의회에서 출발해 시청, 터미널, 공항 입구, 오일장 등 제주 시내 일원을 지나 제주도의

회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다.

이들은 행진 중간 터미널, 공항 입구, 오일장 등에서 도민과 관광객들을 상대로 제2공항 반대 선전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현석기자

수련생 시신 장기간 숨진 명상수련원 원장 구속기소

제주시내 한 명상수련원에서 의식을 잃은 50대 남성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숨긴 수련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제주시내 모 명상수련원 원장 홍모(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8시30분부터 10시20분 사이 제주시내 한 명상수련원 3층에서 A(57)씨가 의식을 잃고 숨질 때까지 119에 신고하지 않는 등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씨는 “기적을 일으켜 살려내겠다”며 A씨가 숨진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장기간 시신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부검 결과 A씨는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사건 현장에서는 주사기와 한방 침, 에탄올 등이 발견됐는데 이 물품들은 부패한 시신을 관리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숨진 것이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졌다”고 상식 밖의 진술을 일관했다.

지난 8월 30일 명상수련원에 입소한 A씨는 9월 1일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이에 A씨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련원에서 숨겨있는 A씨를 발견했다. 이상민기자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길 조성

꼬마탐험대와 만장굴 탐사길 첫 선 오는 15일 김녕초등학교서 걷기 행사

한산 부종휴(1926~1980) 선생은 한라산의 식물상 연구와 만장굴 등 용암동굴의 발견 등으로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선각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특히 선생이 만장굴 발견 과정에서 꼬마탐험대를 조직하고 탐험에 나섰던 일화는 드라마틱하다.

부종휴 선생은 1945년 3월 당시 김녕국민학교 교사로 부임해 이듬해 5~6학년 학생 30여명으로 꼬마탐험대를 조직, 4차례의 탐사 끝에 만장이거머리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름을 만장굴로 명명했다. 꼬마

탐험대와 함께 했던 만장굴 탐험 길이 ‘만장길’이라는 이름으로 코스가 개설돼 첫 선을 보이는 행사가 마련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길림)와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이사장 강만생)·(사)한산부종휴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고민수)는 오는 15일 김녕초등학교 ‘부종휴와 꼬마탐험대’ 조형물 앞에서 만장길 걷기를 진행한다. 만장길은 김녕초등학교에서 만장굴 제1입구까지 약 4.2km 코스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만장길

탐험에 나섰던 길을 제대로 최근 조성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30분 김녕초등학교 학생들의 식전 난타 공연에 이어 만장길을 걸으며 부종휴와 꼬마탐험대의 탐험정신을 기리고 세계유산 만장굴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게 된다. 행사에는 생존 꼬마탐험대와 유족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유산본부와 제주학연구센터는 지난해부터 부종휴 길 조성사업을 추진, 이번에 만장길에 이어 12월에는 한산길(한라산 관음사 탐방로)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산길은 부종휴 선생이 식물을 조사하기 위해 섭음이 오르내렸던 코스 가운데 하나다. 이윤형기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읍면으로 확대

제주시 어제부터 19개 동→5개 읍면지역 시행

동지역 중심으로 시행되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읍면지역까지 확대됐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기존 19개 동에서 읍면지역(한림읍·애월읍·구좌읍·조천읍·한경면)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예산 27억7900만원을 투입해 클린하우스 등 538개소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864대를 설치했고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28개소 및 일반음식점 등 신청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비치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7대 및 수거인력 16명(기간제근로자)을 채용했다.

시는 주민홍보를 위해 방송 홍보, 거리현수막 게시, 읍·면 자생단체 협조로 세대별 홍보물을 배부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배출방법 안내 및 홍보 도우미 350명을 채용해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조기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중 공동주택에 비치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로 교체·설치하게 되면 무게에 따라 버린 만큼 수수료가 부과돼 형평성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대로그기자



제주교육공무직 노조 도교육청 앞 텐트 농성

민중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지난 11일부터 제주도교육청 본관 입구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 사진

이들은 도교육청이 구 육성회,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직종 근로자와 8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국 차원의 보충교섭에서 근로 조건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박진현 교육선전국장은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지침을 보면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교통비, 식비 등 복리후생 비용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이 노동자 처우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다. 보충교섭에서 전형적인 자제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보충교섭이 진행되는 만큼 자제한 사항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검·경 내년 총선 관련 선거범죄 집중단속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경이 선거범죄에 대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지방경찰청은 12일 제21대 총선 선거사범 단속 및 상호 협의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부정경선운동’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역행사, 모임참여, 설 명절 선물 등을 방자한

금품 제공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회의를 선거를 앞두고 검경이 선거범죄에 대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지방경찰청은 12일 제21대 총선 선거사범 단속 및 상호 협의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부정경선운동’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역행사, 모임참여, 설 명절 선물 등을 방자한

노비타 스파비데 출시 기념 이벤트

“비데에 스파를 더하자
행운을 더하자!”

이벤트기간 | 9월 18일 ~ 10월 31일
당첨자 발표 | 11월 15일

novita 노비타 제주점 (구, 제민일보 맞은편)

신광로터리 | 빙스 | 요양병원 | 신제주로터리

마리나사거리 | 마리나호텔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EVENT 01 구매 인증 경품 추첨 이벤트

1등 휴테크 안마의자
2등 THE GOLD 999.9 3.75g
3등 50000

푸짐한 경품

1등 휴테크 안마의자 17+ [1명] 3등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10명]
2등 순금 골드바 1돈 [5명] 4등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명]

이벤트 대상 제품
BD-TE91M / BD-TD90M / BD-AFD500 / BD-WD60 / BD-AE91

EVENT 02 특별한 사은품 증정 이벤트

프리미엄 BD-TE91M 399,000원
프리미엄 BD-TD90M 379,000원

BD-AC50N 199,000원
NEW BD-AE91 269,000원

3D 무브 3way 노출 탈취 + 자동 디스펜서
6만원 상당의 정품 필터 (6개)

3way 노출 3D 무브 + 정품 필터 (2개)